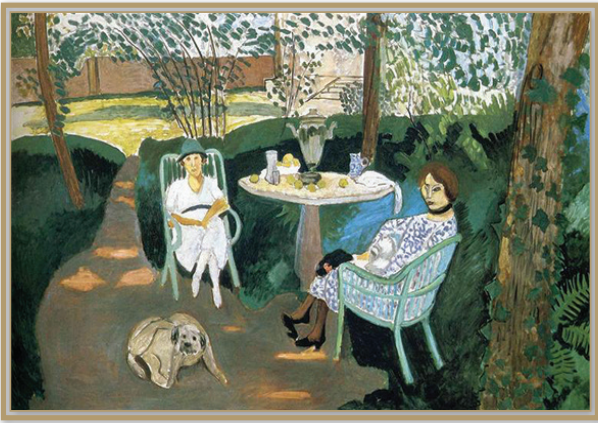


■ 그림 여행



**정원에서 차 마시기**  
(Tea in the Garden c. 1919)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 - 1954)

(캔버스에 유채 140cm x 211c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앙리 마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그림 속에 폭발하는 색채감 때문이다. 마티스의 그림은 색채에서 시작해 색채에서 끝난다. 그가 야수파이든 인상파이든 상관없다. 그의 그림 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색채의 향연을 보고 싶노라면 마음 속에 포만감과 평안함이 동시에 물려 온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스앤젤레스의 7월. 강렬한 햇빛과 열기 속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마티스의 '정원에서 차 마시기' 그림을 만나 본다.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정원 한가운데

두 명의 여인이 개 한 마리와 함께 오후의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정경을 담았다.

티타임. 얼마나 한가하고 사치스런 개념인가. 쫓기고 쫓는 듯 각박한 대도시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록색의 그림은 머나 먼 시간, 머나 먼 공간 속의 이야기 같기만 하다. 마티스는 이 그림을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렸다고 하는데 전쟁의 혼란 후에 찾아온 고즈넉한 평화가 잘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 흰옷을 입고 앉은 여자는 마티스의 그림 모델이었고, 오른쪽에 앉은 여자는 그녀의 딸, 그리고 땅에 앉아 열심히 몸을 굽고 있는 개는 마티스의 애완견이었다 한다. 자세히 보면 사람이나 개나 대충 그린 것 같이 뭔가 빠진 것 같고 물감을 쓱쓱 대강 바른 듯 그림 자체도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어설피다. 굳이 비판하자면 대가의 그림치고는 좀 엉성하다고 할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이끌어가는 것은 놀라운 색채의 조화이다. 어느 한곳에도 시선이 얽매이지 않고 작지 않은 화면 위를 두루두루 둘러 보며 넘실대는 초록색과 그 속에 어우러지는 흰색과 하늘색의 등장을 훌륭하게 바라보게 된다. 색채의 마술사 같은 마티스는 이 그림을 단번에 그려 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음과 눈동자 속에 오래오래 남는다.

뜨거운 여름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는 마티스의 그림은 색채가 주는 위로와 안도감으로 더위에 지친 심신을 시원하게 달래 주며 바쁘고 고달파도 그림처럼 차한 잔 마시며 조용히 한숨 돌려보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준다.

《김동백》

■ 박물관 탐방

■ 루브르 박물관 (Le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으로 바티칸 교황궁 내 바티칸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궁을 개조한 것으로,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아 현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집트 고대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BC 4000년부터 AD 19세기에 걸친 각국의 미술 작품들 약 3만 5천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소장품 수는 38만 점 이상,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만오천 명이다.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모나리자, 모차르트의 초상화와 밀로의 비너스 상 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기도 한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은 근대에 건설된 것으로 한 때 어울리지 않다는 평이 많았으나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되려면 작가가 죽은지 6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자연의 답은 풍기인견  
인견사랑

★ L.A. 지점

갤러리아 밍크의 집 내

주소 : 3250 W Olympic Blvd., #212  
LA, CA 90006

오픈 시간 : 10:00 am ~ 07:00 pm

★ 부에나파크 지점

소스몰 2층 M-폴라 내

주소 : 697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오픈 시간 : 11:00 am ~ 07:00 pm

인견은

경상북도 풍기 지방의 특산품으로 닥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실크 자연 섬유입니다. 피부에 좋은 건강 소재로 통풍이 잘되고 옷이 몸에 붙지 않아 시원합니다. 물세탁, 세탁기 가능합니다.



**\*Open Sale\* Tel. (213) 800.1158**